

# 모금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인 사 말 씀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7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경기도일원에 큰피해와 8월에는 영남지방에 내린 호우로 경산군의 형산강과 울산의 태화강주변이 범람하여 안강읍이 완전침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4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가족과 재산을 잃고 깊은 실의에 잠겨있는 우리 이웃을 도와주자는 국민여러분의 따뜻한온정과 사랑이 전국적으로 메아리쳐 255억원의 정성어린 국민성금과 각종생활필수품 80만점(환가액 41억원)이 담지되어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뜨겁고도 아름다운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전통은 오늘날에도 연면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됩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61년 발족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해이재민구호를 위한 모금과 구호사업을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차후 재해에도 대비하고자 의연금과 각종비축물자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협의회에서 모집된 의연금품의 사용내역을 간추려 국민여러분께 보고하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 6월 29 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유건호